



사랑 · 어울림 · 꿈

광장



등대 살림활동 대장들택탐사

사랑



기

아름다운



광장

- 01** 머리글 2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역사,
갈라진 나라 | 김기현
- 02** 회원광장 12
북중리 점령지역 평화순례기
부천시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 김홍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 이도연
내가 듣고 싶을 때 | 왕정현
- 03** 클럽이야기 21
[동대생협]
“나를 바꾸는 등대” | 봉혜영
팔당 제철채소꾸러미 생산자와의
대화 모임을 갖다 | 김미선
촛불수련회를 다녀와서 | 정화경
디딤들을 소개합니다 | 김동효
[클럽대표자모임] 강화평화기행 | 정다운
- 04** 교실탐방 33
[어린이] 부르키나파소 음악여행! | 임소라
[아기스포츠탄]
7세 아이들과 함께한 지리산산행 | 인태혁
제32회 가족운동회 | 이주연
- 05** 세상을 보는 창 40
바라볼 침 | 한정숙
- 06** 의창한담(醫窓閑談) 41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1430년에는? | 박중훈
- 07** 부천Y3대 과제 캠페인 43
시흥 호조별과 일본 도쿄오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최천우
2018년 가을의 황금빛 대장들녘
생태탐사기행기 | 김지현
대장들녘 금개구리는 가족농부
[부천Y3대 과제] 대장들녘 지키기,
탈핵(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줄이기
- 08** 만화로 보는 밥상특목 60
밥상여덟. 우리 쌀 사랑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 연은미
- 09** 우리 생활문화 이야기 (37) 62
“사랑은 보는 것” | 한면희
- 10** 부천Y이모저모 64
주요일정 및 클럽일정 66

발행인 김영주 편집인 김기현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발행처 부천YMCA
광장지판 박중훈, 한정숙, 왕정현, 김현주, 노진영, 연은미, 박명애, 박다정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69번길 42(중동) 전화 032)325-3100
팩스 032)325-3108 홈페이지 www.pcmca.or.kr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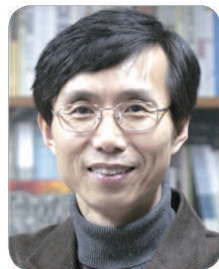
한국YMCA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새 목적문 전문,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역사, 갈라진 나라

- 북·중·러 접경지역 평화순례



김 기 현

(부천YMCA 사무총장)

지난 8월 27일(월)부터 9월 1일(토)까지 2,000km를 넘는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멀고 먼 길을 차와 도보로 이동하며, 고구려 유적과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놀라움과 한탄으로 마주하는 평화순례를 다녀왔다.

부천Y 평화순례단은 80대 어르신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25명의 참가자(이사 4명, 청소년 7명, 회원 8명, 실무자 6명)로 구성되어 백두산이나 연길 등 여행객이 많은 곳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그룹이었다.

첫째 날, 여순과 단동

오전 9시 40분경 대련국제공항에 도착. 1시간 거리를 이동해 여순감옥과 여순일본관동법원을 둘러보았다. 1945년까지 4,000여명의 한인이 옥살이를 하였다는 여순감옥은 월요일 휴관이라 아쉽지만 건물만 보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던 일본관동법원에서는 전시실을 통해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재판정을 직접 바라보니 감회가 남달랐

고, “신채호 선생은 여순 감옥에서 1936년 병사하셨다.”는 안내문을 보니 20대 초반 신채호 선생의 열정에 가득 찬 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단둥으로 약 5시간을 이동하는 길,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물이 걸려있어 인상적이었고, 고구려 비운의 역사가 서려있는 비사성을 차장으로

바라보다 단둥에 다다르니 해지는 저녁노을과 함께 신의주 황금평이 보인다. 단둥은 북과 중국 교역량의 70% 이상 되는 중요한 국경도시이다.



평화기행 안내자는 김홍수 교수(목원대 명예교수, 한국Y전국연맹 이사장)로 한국 기독교 역사와 근현대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일제하에서 분단으로 이어진 민족의 아픔, 그에 저항했던 기독교인과 민족정신에 대해 차분하지만 열정을 담아 설명해주셨다. 김홍수 교수에 따르면 “단둥에서 선양으로 이어지는 길은 ‘문명의 길’로 불렸고, 박지원 ‘열하일기’의 코스였다.”고 한다. 과거 요녕성, 길림성, 하얼빈성에 조선인 210만~240만명이 살기도 했었고, 현재도 단둥시 시내 75만명 인구 중 7만명이 조선족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단둥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락사무소가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이 단둥에서 배를 타고, 상해로 갔었다고 한다. 임시정부 연락사무소는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그 곳에서 독립을 위해 떠나면 이국 땅에서 몸바쳤던 독립운동가들, 그들을 후원해주었던 영국인 조지 쇼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날 숙박한 곳은 압록강 사이에 있는 월량도. 아침에 일어나면 압록강 넘어 북한 신의주가 보인다는 설명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니 신의주 방면에 둥근 달이 휘영청 떠있다.

둘째 날, 압록강 단교와 고구려

아침에 룸메이트인 원종호 재단이사장님과 산책을 나섰다. 이른 시간인데 강변은 운동하는 사람, 체조하는 사람으로 북적인다. 하지만 강 건너 북한은 나무와 풀, 유유히 흐르는 강물만 보인다. 그래도 북한 땅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압록강을 마주하고 서있는 중국과 북한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다.

오늘의 첫 목적지 ‘압록강 단교.’ 6.25 때 미군 폭격으로 끊어진 다리이다. 다리가 끊어진 지점까지 걸어가면 끊어진 다리의 모습과 폭탄을 볼 수 있다. 그 끝에 서서 이제는 없어진 다리의 반대쪽을 보면 신의주시의 꽤 큰 건물들이 보인다. 막막한 마음으로 신의주를 바라보며 북한과 중국, 6.25를 생각하며 상념

에 젖어있다 고개를 돌리니 단교 바로 옆 운행 중인 다리에는 ‘묘향산여행사’라고 쓴 차량 여러 대가 중국 국경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단둥의 관광지에는 “평양 관광 0박 0일” “묘향산 관광 0박 0일”이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있던데 ‘우리만 갈 수 없는 우리 땅’, 그 묘한 슬픔이 가슴에 일렁인다.



다음에 찾아간 곳이 ‘고려문’, 가는 길에 고려와 조선의 운명을 갈랐던 북한 위화도와 마을이 멀리 보인다. ‘고려문’은 옛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 명이나 청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중국의 기독교도 이곳을 거쳐 조선에 소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변문진’이라는 돌표지석만 남아있다.

호산장성을 거쳐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탔다. 유람선은 압록강을 가로질러 북한 땅 삭주 인근으로 서서히 다가간다. 강변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가는 아이들, 소 한 마리를 나무에 묶어놓고 앉아있는 소년, 군인 여러 명이 강가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 그러다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젊은이



세 명이 가까이 나타났다. 우리 일행이 목소리를 모아 “안녕하세요”를 여러 번 반복하자 뭐라고 하면서 두 명이 손을 흔든다. (사진) 주고받는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일행 모두가 감동에 빠지고, 흥분한다. 동포란 이런 것인가?

차량에서 김홍수 교수는 이곳에 여러 차례 왔지만 북한 주민들이 손을 흔든 것은 처음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주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 영향인 것 같다.”고 하신다. 그 말을 들으며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손모아 기도했다.

오후 4시경, 고구려 첫 수도 졸본성(오녀산성)에 도착해 박물관을 관람한 후 999계단을 올라 성에 도착했다. 고구려성의 특징인 돌담과 돌계단, 산꼭대기에 있는 우물, 모두 정겹다.

차에 오르자 가이드가 뭔가를 나누어주는데 개암이다. 어렸을 때 먹었지만 나이 들어 먹기는 처음인데 약간 뽀지만 고소한 맛이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약 3시간 이동하여 고구려 수도인 집안에 도착, 묘향산 북한식당에 들러 늦은 저녁을 먹었다. 우리 때문에 기다려준 북한 종업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식은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셋째 날, 고구려, 드높은 문화와 웅장한 기상

이른 아침, 호텔에서 10여분 걸어가니 압록강이 도도하게 흐른다. 압록강 너머는 북한의 만포시, 눈만 뜨면 마주하는 압록강이 정겹고 슬프다. 집안은 졸본 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후 400년 동안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 호텔 인근에도 고구려 성곽이 남아있으나 방치되어 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신흥무관 학교도 집안에 있었다고 한다. 압록강변에서 호텔로 돌아오는 길, 비가 흩뿌리는데도 꽤 큰 시장이 열렸다. 각종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작은 소품까지 왁자지껄한 시장은 언제나 활기차다.

8시 경, 고구려 수도방어의 요지인 환도산성에 도착했다. 시간관계로 산성을 올라가지는 못하고 바로 옆의 고구려 무덤떼를 본다. 도올 선생은 피라미드보다 더 대단한 신비라고 표현했던데 고구려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듯 무덤떼의 규모가 대단하다. 광활한 대지에 4,700기의 고분군이 있고, 심지어 1만개에 이른다고도 한다. 천천히 돌아보고 싶었지만 일정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에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비, 사면이 유리로 되어있어 사진 찍기는 어렵지만 돌에 새겨진 글씨를 가까이서 보니, 멋드러진 글씨체가 놀라움을 자아낸다. 414년 장수왕이 세웠다고 하니 1600년 전 저 웅장한 비를 세웠던 고구려인의 마음을 어림짐작해본다. 광개토왕비의 여운을 안고 방문한 곳이 '오회분 5호묘' 고구려 귀족 묘지 5개 중 한 곳의 지하 묘소를 내려가니 지상에 비해 내려가는 계단이 깊고, 크다. 그 계단 끝에 맞닥뜨린 고구려벽화! 사진을 통해 고구려벽화를 많이 보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참가자 모두가 말을 잃었다. 14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색이 선명하고, 용과 변, 신선과 구름, 인물의 표정과 윤곽이 살아있다. 그 놀라움과 여운을 안고 찾아간 장수왕릉(장군총), 총 7층의 단계식 피라미드로 약 14m 높이, 31.5m~33m의 장방형 돌무덤이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피라미드식 돌무덤이 웅장하고, 멋진 자태로 우리를 맞이 한다.

집안은 거리 곳곳이 청결하고 깨끗하다. 중국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 뒷골목도 청결한 도시는 처음이었고, 높은 건물도 없고 환경도 쾌적해 살고 싶다는 느낌이 저절로 나는 도시였다.

오후 첫 코스인 름강은 압록강에 접해있는 도시로, 름강 압록강교 건너편은 자강도 중강군이다. 여기부터 약 250km를 압록강을 따라 북한마을을 조망하는 '압록강 천리순례'에 들어선다. 차창을 내다보니 압록강이 바로 곁에서 흐른다. 몇 시간을 북한의 산과 들, 마을(자강도와 양강도)을 마주 보고 달리니 모두 창밖을 내다보며 탄성과 탄식, 웃음과 한숨이 교차한다. 너무도 그림고 뵈아보고 싶지만 중국에 비해 험벗은 산, 급경사에도 다량이 밭을 일군 북한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상념에 젖는다.

저녁 늦게 백두산 자락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하여 70년대식 소박하지만 정겨운 밥상을 마주하고 쌀쌀한 기운 속에서 잠자리에 든다.

넷째 날, 민족의 영산 백두산

오늘은 백두산, 참가자들이 많이 기대한 날이다. 다른 날은 흐려도 이 날은 맑았으면 했는데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린다. 오늘 가는 곳은 '백두산 서파

코스.’ 등산로 입구까지 버스를 타고가 1,442계단을 올라 백두산 정상에 도착한다. 힘든 코스는 아닌데 비가 계속 내리니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길이 미끄럽다. 정상에 오르니 사방에 안개만 자욱해 천지 방향을 바라보며 망연자실....그래도 백두산 정상이라는 이정표 앞에 서니 가슴이 뿌듯하다. 일행 중 한명이 중국·북한의 경계비(조중경계선 37호 경계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흉내 내어 한발을 슬쩍 북한 땅에 걸치니 모두가 아이같이 즐거운 표정으로 따라한다. 자세히 보니 경계비의 한면은 中國, 한면은 조선. 추위에 떨면서도 경계선에 기대어 북한 땅을 한참 바라본다.



천지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후일을 기약하며 정상에서 내려온다. 그러나 추위에 떨던, 아쉬운 여운은 천지가 용암을 분출하여 기암괴석이 곳곳에 있는 금강대협곡을 가볍게 트레킹하니 밝은 마음으로 변하고, 점심 식사와 함경도 막걸리를 곁들이니 몸과 마음이 풀린다. 오후 3시경 출발하여 저녁 무렵 연길에 들어서니 곳곳의 한글간판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한다.

다섯째 날, 북중러 접경지역. 아! 일송정

북중러 접경지역인 훈춘으로 가기 위해 오전 7시경 출발하여 8시경 두만강 나루터가 있던 ‘도문’에 도착. 여기서부터 버스가 두만강과 나란히 달린다. 두만강을 보니 압록강 보다 강폭이 좁고, 심지어 개울 같은 곳도 있다. 두만강이 우리 역사의 희비애환의 장소이고, 북간도(간도지방의 동쪽, 두만강과 마주한 지역) 지역이 조선족과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된 것은 이런 지형적 조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오래 전 읽은 이기영 작가의 대하소설 ‘두만강’이 문득 떠오르며 일제의 수탈을 피해, 독립운동을 위해 충청도에서 평안북도로, 두만

강을 넘어 북간도로 넘어간 민초들의 삶을 생각하며 상념에 젖는다.

훈춘에서 국경지역 전망대에 올라가니 오른쪽이 북한, 왼쪽이 러시아, 우리가 서있는 곳이 중국이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얹혀있는 세 나라의 접경지대, 이곳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섞여 있다. 문득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러시아 국경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지고, UNDP가 주도한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나진·청진, 중국의 훈춘·옌지, 러시아의 포시에트·블라디보스토크가 초국경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데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떨지 기대된다.

다시 버스는 북한의 남양시를 바라보며 두만강을 따라 달리며 용정으로 향한다. 독립운동의 상징이기도 한 명동촌에 오후 4시 30분경 도착. 명동학교에는 ‘중국조선족교육제1촌’이라는 현판이 있다. 작년까지는 없던 현판이라는데 조선족교육의 상징은 맞는 말이지만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조선족을 강조하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용정은 김재준, 문익환, 강원용 목사, 장준하 선생 등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던 곳으로 중국인 지주에게 600만평의 땅을 1만냥



에 구입해 개간하였는데 제일 좋은 땅 1/10을 자녀들의 교육에 쓰는 학전(學田)으로 정했다고 한다.

명동학교 설립자인 김약연 선생의 동상 앞에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명동 학교옛터기념관을 둘러보니 1899년 2월 함경북도 회령에서 25세대 142명이 집단이주해 “동쪽을 밝힌다.”는 명동촌을 만들고 명동학교를 세워 1910~1920년대 조선족 삶의 터전이자 항일투쟁의 주요한 활동무대였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간접적이거나 느낄 수 있다. 이어서 운동주 생가를 방문하니 당시로서는 상당한 큰 집이었다는 느낌이 들고, 곳곳에 서있는 시비를 바라보며 한없이 민감하고, 감수성 풍부한, 맑고 깨끗한 젊은 시인이 암울한 일제 강점기를 어떤 마음과 고통으로 살아갔을까? 상상할 수 없는 마음만 1940년대를 넘나든다.

날이 저물까 걱정하며 찾아간 비암산 일송정! 다행히 아직은 환한 때 비암산에 올라 일송정 옆에 서서 넓은 평야를 가로지르는 해란강을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솟는다. 자연은 이렇게 유구하건만, 역사란 무엇이고,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무엇인지? 일송정 옆에서 해란강을 바라보며 ‘선구자’(원래 제목은 ‘용정의 노래’)를 함께 부르니 장엄한 역사와 조국,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을 떠나 이국의 땅을 개간했던 사람들, 이곳에서 새로운 교육을 열고, 독립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 숭고한 이상에 온 몸을 던졌던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통이 슬프지만 가깝게 다가왔다.

주위에 내린 어둠이 내렸지만 이상철 선생이 세웠다는 서진서숙 터와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던 은진중학교 터를 방문하고, 용두레 우물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용문교를 함께 걷는다.

여섯째 날, 연길에서 인천으로

아침에 근처에 있는 시장을 찾아가니 이른 아침인데도 엄청난 규모의 시장과 많은 인파에 놀라게 된다. 시장을 둘러보니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불에 그을린 개고기를 형태 그대로 팔고 있어서 흠칫 놀란다. 연길은 생각보다 큰 현대적인 도시인데 가이드의 말로는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소비도시로 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영향인지 커피숍과 노래방이 많다.

다양한 세대 25명이 함께 지내다보니 경험과 문화가 다른 점도 있었지만 세대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여행의 맛과 멋을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나 싶다. 청소년들은 재래식 화장실에 충격을 받았지만(특히 칸막이가 없는) 우리나라도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고, 수세식 화장실의 친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그것을 발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관광지마다 운영하는 전기버스에 놀라기도 했고, 끝없이 이어진 광활한 대지가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북녘 땅, 압록강과 두만강, 그 강렬함과 애뜻함은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해란강을 뒤에두고 일송정에서 다함께

북중러 접경지역 평화순례기



운동주 생가에서 이번 평화순례에 참여한 청소년들(윤서, 서진, 지훈, 지민, 지웅, 민재, 여민)

김서진 (중흥중 1)

북중러 접경지역 평화순례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와 유물, 유적지 등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백두산과 여순감옥과 여순 일본관동법원을 관람한 것이었다. 여순감옥과 일본관동법원을 관람하며 안중근 의사와 다른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설명을 들은 후, 힘든 고문을 받고 돌아가신 장소였던 여순감옥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다. 역사기행을 하면서 또 다른 기억에 남는게 있다면 우리의 유적지를 보여주면서 “여기는 중국의 땅입니다.”라고

설명하셨던 점에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만약 또 해외로 가서 역사를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열심히 참여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고 친해지고 싶다.

김운서 (부명중 2)

처음 평화기행에 대해 듣고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과 같은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가 보겠어’라는 마음과 단순히 학교도 학원도 안가고 그냥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행 일정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갔던 장군총이었습니다. 제가 장군총을 인상 깊게 느꼈던 이유는 장군총과 같은 삼국시대의 문화가 제 중간고사 시험범위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험 때문에 외워야 해서, 공부해야 해서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실릴 만큼 중요하고, 잊어선 안 될 역사적인 유물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책에서나 봤을 법한 곳을 제가 직접 다녀오고 생생히 느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이번 기행에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여민 (부명초 6)

상시 엄마는 나랑 오빠에게 혹시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냐고 물어보시곤 하셨는데 이번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중국 평화순례기행을 하던 일정 중 운동주생가를 다녀왔다. 이전에 학교에서 동주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었는데 운동주시인이 진짜 살았던 집에 간다니까 엄청 떨렸다. 운동주의 집주변으로 돌아나 기동 간판 등에 시인의 시들이 한글과 한자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중에 유명한 서시도 있었다. 그 시를 보며 시를 썼을 때의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니 뭔가 내 마음과 기분이 묘하고 이상했다. 내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또 다른 일정으로는 역사책에 나오는 광

개토대왕릉비도 보고 장수왕릉에도 들어가보고 오녀산성에도 올라가보았다. 무엇보다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며 북한 분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 우리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같은 평범한 그 사람들을 멀리 않은 시간에 꼭 다시 만나보고 싶다.

최지민 (부명중 3)

사실 엄마한테 평화순례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게 되어 엄마와 동생과 함께 중국에 가게 되었다. 기행 일정 중 역사책에서 나오는 고구려의 첫 도읍이라고 하는 졸본성에 갔는데, 중국은 산 이름을 써서 오녀산성이라고 하였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내려와선 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던 박물관에 들렀는데 설명이 중국어와 영어로만 되어있고 한국어는 없었다. 엄마가 설명해주셨는데 고구려인들의 훌륭한 문화 등에 대해 쓰여 있지만 정작 고구려가 한국의 선조라라는 말은 없다고 하셨다. 돌아오기 전 날쯤 윤동주 시인 생가에 갔었는데 거기엔 문 앞에 윤동주 시인을 소수민족의 한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역사왜곡도 심하고 아주 욕심이 많은 나라인 것 같다. 하루빨리 제대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드디어 백두산에 가는 날!! 어렵게 도착한 백두산은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내내 안개비가 내려서 정상에 가니 너무 추웠고 안개 탓에 사방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래도 말로만 들던 백두산을 가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추위를 감내할 수 있었다. 힘든 기행일정이었지만 같이 가주신 교수님의 유익한 말씀도 많이 듣고 역사공부도 하고 북한사람들도 만나보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모습도 느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때는 중국 쪽이 아니라 북한을 통해 가보게 된다면 참 좋겠다.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2018년 부천시의회 제230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이 9월 3일(월)부터 9월13일 (목)까지 9일간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부천시의회 3층에서 있었다.



김 홍 여 (등대마을지기)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부천 YMCA를 비롯한 부천시의회 시민 단체들, 시민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되었다.

솔직히, 전에는 시청이나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상 3동 특고압 문제를 알게 되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고압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대처의 한계에 무력함을 느끼고 있던 중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참여를 신청하였다.

시의원들의 질의는 내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느껴졌다. 또한 맡겨진 공무에 대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건지 허둥지둥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수준이 내가 생각해온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보고 속상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어떤 공무원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행정감사를 참여하는 것이라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며 특정 공무원들의

수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받는 가장 큰 벌은, 나보다 저열한 사람들에게
게 지배 받는 것이라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하자면,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
는 시민, 실천하는 시민이 되어 지역 자치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겠다
고 생각이 되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이 도 연 (아기스포츠단 학부모 대표)

2013년 정부가 유치원생 육아 학비 지원을 시작하며 2017년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시위까지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들었던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학비 지원은 전액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육아학비 지원은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확장하고자 시작한 정책 중 하나로 알고 있으며, 이는 말 그대로 “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비용이다.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라 함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를 완성시키기 위해 정부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국가의 투자는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

그 아무리 아동, 교육 등에 대한 뛰어난 전문가가 있다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필요한 맞춤 교육계획을 갖고 있을 부모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애당초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욱 맞지 않겠는가. 각 아이별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교육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다양성에 대한 고찰이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의 낮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 제도적 방법은 문제점이 크다.

혹자는 금액 전부가 부모에게 지원되었을 때 그 지원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액 부모에게 지원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단지 유치원 학비를 아끼고자 하는 명목으로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음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대다수 부모들은 내 아이의 사회성에 대한 염려만으로도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혹은 부모의 선택으로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홈스쿨을 하는 비용은 유치원 학비 이상의 부담이 된다. 즉, 홈스쿨링을 통해 개인이 돈을 유용할 현실적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한 없이 지원받는 국가적 제도아래에서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 다양성을 선택할 수 있고자 하는 것이다. 각각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방법에 대한 보다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학비지원은 부모에게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립유치원이 학비 지원을 일부 받게 된다면 마땅히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기관은 그 지원을 받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고 올바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즉, 책임과 의무를 잘하고 있는지 국가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지원받은 학비사용에 대해 감찰하는 것이 개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감사제도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며 그렇기에 철저한 감사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민의 한 사람인 부모들과 시민의 한 사람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 속에서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정부가 올바른 판단으로 모두가 투명한 교육운영과 참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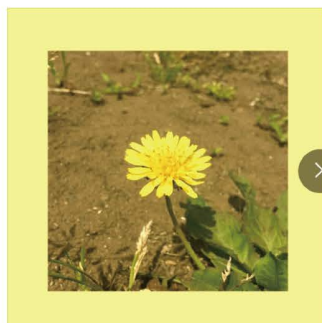
2018년 10월 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용진국회의원의 주최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중심으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내가 듣고 싶을 때



왕 정 현 (광장기자단, 마중등대춧불)

노래를 듣는다. 자주 듣던 노래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가사에 집중하게 된다. 민들레



민들레 (single ver.)
우효(Oohyo) 작사 작곡

〈가사〉

우리 손 잡을까요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 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 갈까 내 마음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매일 기다려요
 나 웃을게요 많이 그대를 위해 많이
 많이 웃을게요
 우리 손 잡을까요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은 안아줘요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춤을 춰요 (왜 왜 자꾸 멀어지려 해)
 우리 동네에 가요 (왜 왜 자꾸 놓아주려 해)
 놓아주려 해
 바람처럼 사라질까 내 마음을 채워줄까
 나는 너를 보고 싶어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시간 함께 하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같이 걸어가요 웃게 해줄게요
 더 웃게 해줄게요
 영원히

매일 아침 길을 나설 때,
 운전을 하면서,
 버스나 전철 안에서,
 점심을 먹으며,
 음악을 듣는다.

늘 무언가를 하면서 듣던 노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게 되면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등대생협

“나를 바꾸는 등대”

- 저녁등대 활동을 하며...



봉 혜 영 (올빼미잔치 등대 풋볼)

둘째를 YMCA에 보내길 간절히 원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감도 못 잡겠는 ‘등대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YMCA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주변 몇몇 분들께 여쭙 봐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막연했던 것 같다. 직장생활을 하며 시댁에 아이들을 부탁드리는 상황에서 2주에 한 번씩 9시까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저런 막연함과 부담감, 어색한 마음 등을 가지고 작년 첫 모임에 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점등식을 하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등대 이름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담당지기를 정하는데, 우물쭈물하고 말할 타이밍을 놓쳐 가장 마지막 남은 등대지기를 떠맡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등대생활이 벌써 1년 반이다. 2017년 1년 동안 ‘꿈꾸는 나무 등대’의 우리 풋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활동이 정해지면 담당 지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주고, 다른 풋볼들은 열심히 참여해 주었다. 출석률도 좋아서 월례회 때면 어깨 으쓱하며 힘이 살짝 들어가기도...물론 올해 우리 ‘올빼미 잔치’ 등대 풋볼님들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신다^^

저녁 등대는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1부 마음 나눔 시간이다. 작년에는 유독 가정이며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았는데, 마음 나눔 시간에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치유를 받고 서로 친밀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그리고 아이를 와이에 보내기 전부터도 정치, 사회, 교육, 환경 등등 내 주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는 편이었는데, 2부 활동인 사قم, 살림, 밥상, 독서 활동이 나의 평소 관심사를 반영하여 진행되는 것들이어서 올해도 등대활동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قم 활동을 통해 상대를 깊이 있게 알고, 나에 대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좋았고, 밥상 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된 GMO 식재료의 위험성, 왜 제철을 식을 먹어야하는 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열무김치가 들어간 비빔밥 만들어



먹기, 가족들에게 어떤 식재료로 음식을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만
들어 본 쌀강정 만들기도 기억에 남는 활동이다. 살림 활동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된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 등대 활동을 하게 되면서 30년 넘게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촛불님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투표했다는 이야기에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꼈다. 이제는 습관이 된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와 외출
할 때 손수건 챙기기, 직장에서 텀블러 사용하기는 등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바뀐 생활습관의 변화이기도하다.

우리가 등대에서 하는 활동들이 세상을 아주 많이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나부
터, 나 먼저 이렇게 조금씩 함께 실천하다보면 그래도 점점 좋은 세상으로 바뀌
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가져본다. 그리고 등대 활동을 통해 맺어진 촛불님
들과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생의 좋은 벚
을 만난 듯 마음 한 편이 든든한 느낌이다.

촛불수련회에 가보면 자발적으로 3~4년 이상,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등
대 활동을 하는 촛불님들을 만나게 된다. 자신있게 ‘나도 그렇게 오래오래 할
거야’라고 말 하기는 힘들지만, 심적으로는 이미 나 역시 그쪽에 살포시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다. 음...나의 장점이라고 하나 꼽자면, 특출나게 잘 하는 것
은 없지만 뭐든 한 번 시작하면 꾸준히 쭉쭉 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등대생협

팔당 제철채소꾸러미 생산자와의 대화 모임을 갖다



김 미 선 (등대생협 나눔터지기)

9월 지기월례회에서 팔당 제철채소 생산자이신 이흥건, 김상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농촌의 모습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기 농사를 짓는 이유, 다양한 요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재배 과정 중 화학비료와 살균제 등을 주입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은 수확량을 위해서 LED등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날씨로 인해, 멸절한 채소를 공급해도 운송 과정에서 무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때 아닌 가을장마로 인해 심어 놓은 작물을 다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옛말을 곱씹어 보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눔터 실무자로 근무를 하며 제철채소꾸러미 공급과 관련하여 올해처럼 마음이 답답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서로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갈아 마음이 늘 답답하였는데 9월 지기월례회를 통해 등대생

협 조합원과 생산자와의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한 시간이었고, 생산자분의 거친 손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땅 한 평 가지지 않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정성이 듬뿍 들어간 먹거리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생산자분과,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다양한 요리법 안내 ♥

1. 쓴 오이 : 설탕과 소금을 1:1 비율로 절인 뒤에 무침으로 이용하면 쓴맛이 제거된다.
2. 호박잎 : 변신의 귀재 호박잎은 호박잎 쌈과 호박잎을 넣은 된장찌개, 호박잎 무침, 호박잎을 넣은 김밥과 햇볕에 말린 호박잎 나물 등으로 이용해보시면 좋겠다.



팔당 제철채소꾸러미 생산자 오른쪽부터 이흥근, 김상균

등대생협

쫓불수련회를 다녀와서



장 화 경 (자라는 등대 쫓불)

9월 마지막 주말, 무더운 여름은 온데간데 없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을 때, 22명의 쫓불들이 쫓불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올해 아이를 아기스포츠팀에 보내면서 시작한 등대활동인지라 여전히 등대라는 개념은 저에게 있어서 생소했고, 한주 한주 맡겨진 활동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쫓불수련회도 활동의 일환이란 생각과 우리 등대 쫓불님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기대로 뜻을 모아 출발했습니다.

항상 가족과 지내다 나를 혼자 떠나는 1박2일의 시간인지라 설렘은 더 컸습니다.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언제쯤부터 탁 트인 북한강 줄기가 보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매 주 받는 제철채소 꾸러미가 생산되는 팔당부터 둘러보고 생산자님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해 여름, 그들의 노고, 농사꾼으로서의 고민을 생생히 들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먹거리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소비자로서 만나던 채소 한 상자는 상당한 무게가 담긴 소중한 땀의 결실이고, 소비만하는 사람이 아닌 먹거리에 대한 주체자로서 의식과 사명도 담겨있었습니다.

쫓불수련회…… 사실 출발은 어색하고 부끄러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래실 마을이 선사하는 무르익은 황금들녘의 풍요롭고 평온한 분위기는 어스레 마음을 열고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꺼내며 나에 대해 잠시나마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였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쫓불님들과도 한발 더 가까워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수련회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등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등대란 나에게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나아가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시간을 선물한 곳입니다

이제는 어색하고 서먹하던 월례회도 살가운 눈인사로 한번 더 다가 갈 수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날의 쫓불님들.



등대생협

디딤돌을 소개합니다



김 동 효 (디딤돌 회장)

매해, 매월, 매주 목요일만 되면 무엇에 이끌리듯 달려가는 곳이 있다.

디딤돌!! 그 곳에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 향과, 무엇보다 나를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다. 매주 보는데 뭐가 그리 반가울까? 싶지만... 우리는 늘 그래온 것 같다.

예전에도 지금도 한결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람냄새 폴폴 풍기는 DNA를 어디엔가 장착하고 목요일마다 만나는 건지 참 미스터리하다.^^;

우리 클럽을 소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후에 나는 내가 디딤돌에 첫 발을 내딛었던 시간을 회상해 보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스물 한 살된 큰아들의 아기사포츨단 입단을 위해, 그 해 이른 아침 7시쯤 회관 밖에서 선착순으로 줄 서있던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웬지 당첨이라도 된 듯 입단 후에는 엄마 노릇을 다한 것만 같아 많이 뿌듯했던 나의 모습이 지금도 또렷하다. 그러나 인연이 아니었는지 1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또 까마득히 시간이 흘렀다.

나이들어 청소년과 관련된 공부를 하겠다고 열정을 안고 뛰어든 후 YMCA 청



소년상담실에서 진행하는 ‘즐거운 학교’ 멘토로 우연히 딱 한번 대타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목요일만 되면 디딤돌로 달려가고 있다.

참 지금도 희한하다. 나는 독실한 불교신자이고 또 아기사포츠단으로 인해 등대활동을 잠깐 하는 동안에도 그 방식들이 너무나 낯설고 생소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시 이어지는 인연의 끈이 여전히 신기하게만 느껴진다.

그동안 디딤돌에서의 여러 교육과 활동들.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위해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가감 없이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를 한없이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한 소중한 시간들은 잊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이다.

또한 ‘평화감수성’이라는 단어와 마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학생들에게 스며들도록 중요한 활동가가 되어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매일 새롭게 나와 만나는 행복한 요즘이다. 아마도 디딤돌이라는 클럽을 알지 못했다면 어찌면 나 잘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YMCA에는 애정많은 클럽들이 있지만 디딤돌 클럽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한다면, 내 생각엔 온전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가 채워주는 휴식같은 장소이자 안전한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혹시나 일상이 지루하거나 힘겨운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디딤돌로 놀러 오세요. 편안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디딤돌은?

1990년 1월, 부천YMCA 청소년상담실 제1기 자원상담원모임을 시작으로 1년 후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현재까지 꾸준히 클럽활동 중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정서적 성장을 돕고자 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진 자원상담활동가 모임으로 매주 목요일 1회씩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스스로 심리상담 관련 학습스터디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배우며 자기 성장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나이가 배움을 나누고자 부천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평화감수성교육, 심성수련 집단상담, 또래상담교육 및 개인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모임 안내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12시 5층 나눔방

클럽대표자모임

강화평화기행



정 다 운 (회원운동팀 간사)

10월 둘째주 토요일 클럽대표자분들과 클럽협력간사들이 함께 강화평화기행을 떠났다.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추운 겨울이 오나 싶을 만큼 쌀쌀했던 날씨가 그 날만큼은 출발부터 완전한 가을 날씨로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가을하늘에, 가을빛깔에 흠뻑 취하게 만들었다. 가는 길 버스 안에서 각 클럽의 최근활동과 연말행사를 나누고, 2019년 회원모집운동과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대해 공유하며 클럽별 결의를 다지는 동안 어느새 첫 번째 여정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한국 최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에 도착했다.



초기 성공회가 들어오며
한옥모양으로 성당을 짓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
리수나무를 성당 앞마당에
심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으
며 한국인의 정서를 존중하
며 그 속에서 영성을 심고



자 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한국 YMCA 목적문” 퍼즐을 맞추며 목적문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슴에 새겨 보는 시간을 가진 후, 언덕을 올라 왕자정묵밥집에서 따스한 묵밥 한 그릇과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행복한 나눔장터” 티켓을 서로 나누며, 두 번째로 향한 곳은 가장 최근에 지었다는 “강화평화전망대”.

불과 2~3Km, 땀 뚫린 시야로 가장 가까이에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기에 분단된 현실이 더욱 가슴 저리게 느껴지고 통일을 더욱 염원하게 되는 곳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감리교의 어머니교회라 불리는 “강화교산교회 기독교선교박물관”이었다. 입구에 있는 선상세례모형을 보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느낄 수 있었고, “강화에 떨어진 한 알의 겨자씨가 복음의 숲을 이루다”라는 주제 성구를 보며 ‘각 클럽에서 겨자씨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클럽 대표자분들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성공회와 기독교의 성지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북한을 마주할 수 있는 강화도로 평화기행을 다녀오며, 강화의 또 다른 매력에 흠뻑 취한 날이었다.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좋았더라~^^



어린이Y

부르키나파소 음악여행!



임 소 라 (어린이Y 교사)

부르키나파소 음악을 선물해준 아미두(AMIDOU)선생님에게

처음 어린이Y에서 부르키나파소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아미두의 강렬한 눈빛과 두 동생이 서툰 한국말을 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이Y 친구들은 우리와 다른 피부색을 지닌 강사 선생님들인 아미두와 두 형제의 어설픈 장난과 친근함 안에서 마음을 열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강사선생님들이 아프리카에서 만든 악기를 설명해주고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어린이Y 친구들은 호기심이 발동하였죠. 이어서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좋아하는 용기있는 친구들임을 스스로 표현하였습니다. 아이두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둥둥둥’ 소가죽으로 만든 둔둔바, ‘찰싹찰싹’ 쉬워 보이지만 박자를 지키는 카메룬, ‘탕탕탕’ 옐로디가 있는 발라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켈메, 마지막으로 주법이 어려워 우리는 저볼 수 없었지만, 제일 화려한 소리를 들려주었던 코라!

한주 한주 수업마다 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악기를 연주해 가며 2시간의 연습이 끝나고 기분을 이야기 시작하면 자신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오물조물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요. 막막한 악기를 쳤던 한 아이는 ‘손바닥이 아프지만 즐거웠다’고 이야기하며 또 다른 아이는 ‘켈메를 계속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어



(왼쪽 위부터 켈메, 갈리바스, 발라본)

가는 모습을 보니 기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미두선생님도 ‘우리가 너무 잘 한다.’ 칭찬해주었죠.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더 감사했습니다. 소통은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하지요. 악기연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혼자 잘 치는 것보다 서로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소리의 크기는 어떠한지, 박자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반응해 가며 연주해야 아름다운 합주곡이 만들어 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악기와 함께 ‘디워이 디센자(부르키나파소 언어로 – 서로를 돌보자는 뜻)’를 함께 노래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뿐 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구름처럼 퍼지길 소망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의 악기를 연주하며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소통해야하는 것처럼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평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지요.

마지막으로 공연이 시작되고 우리는 알록달록한 천을 위에 두르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초대해 ‘디워이 디센자 이에 이에~’ 노래를 부르며 아프리카 전통음악인 부르키나파소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도 추었습니다. 아미두선생님도 매우 신나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웠습니다. 어느덧 추워진 날씨가 다가왔지만, 다음 부르키나파소 음악수업에서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와 노래가 흘러들어들지 기대됩니다.



아기스포츠팀

7세 아이들과 함께한 지리산산행



안 태 혁 (아기스포츠팀 교사)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9월 14~15일, 어느새 훌쩍 자란 7세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노고단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2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리산에 올라가서 금메달도 받고, 반달기슭곰도 보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지리산 가기 일주일 전 수업시간에 다른 지역Y 친구들과 나눌 명함을 만들고 색종이 접기를 하면서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당일 저녁 친구들을 만나 직접 만든 명함을 교환하며 소개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기다리던 지리산노고단 등반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두





근두근 떨려하며 설레어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어야 등반을 잘 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눈이 동그래지며 열심히 먹던 귀여운 친구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등반을 위해 버스를 타고 노고단주차장으로 출발합니다.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면서 신기해하던 우리 친구들! 주차장에 도착하자 가방에 주먹밥, 물, 간식, 우비를 챙겨 지리산노고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발 한발씩 오르면서 구름이 맛있다고 말하는 친구들, 다람쥐를 봤다는 친구들, 서로 자기가 본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해주고 들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정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쯤 지났을까?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씩씩하게 가방에서 우비를 꺼내 입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 했습니다. 늪름한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상을 향해가던 친구들이 노고단 대피소를 지나고 구름을 먹어도 보고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며 걸어서 드디어 도착한 노고단 정상에서 환호성과 함께 정상에 올랐던 기쁨을 만끽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금메달도 목에 걸고 행복해 하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 뿌듯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씩씩한 모습으로 내려오면서 중간에 힘들어 하면 서로 손도 잡아주고, 격려의 말도 해주면서 포기하는 친구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즐겁게 지리산노고단 등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보슬비를 맞으며 올라간 지리산노고단 등반이 아기스포즈단 친구들 마음속에 남아 언제 어디서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래봅니다.

아기스포츠탄

아기스포츠탄 제32회 가족운동회



이 주 연 (샘물반 이지아아빠님)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Y에 다닌지 7개월이 되어간다. 아이는 아스단, 아빠는 샘물반 섬김지기, 엄마는 등대지기로 우리 가족은 그 누구보다 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와이에 운동회가 있던 날, 평소 지아가 운동회 준비한다고 흥얼흥얼 거리긴 했지만 애들이 뭘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운동회 당일, 날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노래에 맞춰 하나 되어 춤을 추고 깃발을 들고 하나 된 동작으로 율동하고 어려운 체조동작을 보고 있던 부모



들은 전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한참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소화한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너무 잘 커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아이들을 지도해주었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며 감사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다소 번거롭고 간편하게 먹으면 되지 비빔밥까지 해서

먹어야 하나 생각했지만, 막상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가져오신 정성스런 재료들이 합쳐져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래서 비빔밥을 해서 먹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체줄넘기가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빨강군의 어머니들이 우승을 해서 흥미를 더해갔고, 줄다리기는 아빠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응원전이 이어졌고 아버님들은 젓 먹던 힘까지 서로의 힘 대결을 하면서 그 열기는 더해졌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계주가 아니던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총13명의 계주였고 난 13번째 마지막 주자였다. 2층에서 빨강군의 응원소리와 우리 딸이 ‘아빠 화이팅’하는 소리가 나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고, 범인을 잡는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뛰었고 우리가 1등으로 들어왔다. 결국 빨강군의 전체우승이었다.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일군우승이라서 더 뜻 깊었고,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모두 행복한 운동회였다. 부장님 이하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뜻 깊은 운동회를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리고 나는 둘째아이가 유치원 입학 전이지만 둘째가 입학해서 졸업 할 때까지 와이운동회에 참가해야 할 것 같다. 아이를 와이에 입학 시킨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1430년에는?



박 종 훈

(부천Y 증권이사장, 삼화한의원 원장)

늦게 결혼한 새댁이 내원했다.

난임(難妊)으로 시험관시술을 받았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나이도 있고 시술도 실패하여 상심이 큰 상태이었다. 주변에서 권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을 찾은 것이었다.(적어도 난임, 불임에는 탁월한 선택이다) 진료비를 결제하는데 ‘고운 맘 카드’를 냈다. 국가복지바우처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였다.(1회 50만원 이내에서 38개월 분할 지원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사자에게는 쉬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년 전에 독일인에게 시집을 간 지인의 딸이 아기를 낳고 친정에 왔다. 그런데 남편이 동행을 하였다. 산모가 몸이 약하기도 했지만 거의 1년을 휴가로 냈다기에 무척 놀랐다. 장기간의 휴가에다 나라로부터 부모수당(엘턴겔트)을 받는다니.

독일은 출산예정 6주에 출산 후 8주, 합해서 최소 14주의 출산휴가가 주어진 다나. 뿐만 아니라 부모수당을 받으며 부, 모 합해서 14개월(둘이 협의하여 각

각 나눠 쓸 수 있다)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수입이 있는 경우는 세후급여의 67%를 매월 지급받는다. 전업주부도 매월 300유로를 받는다.

세계에서 13번째 경제대국, 트럼프가 ‘부자나라’라고 칭 튀기며 주머니를 노리는 나라. OECD도 진즉 가입했고, 이 정도면 가히 선진국 반열에 드는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압축 성장을 하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나라. ‘코리아드림’이라는 단어가 생긴 나라, 대한민국의 현행 출산휴가는 어떤가?

출산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그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의무다. 전업주부가 받는 수당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직업을 가진 산모의 육아휴직은 1년이 가능하며 이때는 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경력 단절이나 복귀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더욱이 핵가족 사회에서 산모를 돌봐야 하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5일, 그 중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600년 전 세종대왕 때는 어땠나?

1430년(세종 12년), 관노비가 출산할 경우 출산 전 30일, 출산 후 90일, 합해서 120일 동안 복무를 면제하는 출산휴가를 주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4년 후인 1434년(세종 16년)에는 남편도 30일간 출산휴가를 주었다. 그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의 나라에서 여염집도 아닌 노비에게 내린 출산휴가제도는 세종대왕의 애민(愛民)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산모의 건강이 열악한 사회이고 영아사망률이 높은 사회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이것이다.

지금의 90일보다 많은 120일, 게다가 배우자의 5일보다 훨씬 긴 30일간 부모의 출산휴가. 지난 역사를 보며 우리는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서로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진행하여 보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다음호부터는 Q&A로 일상 생활에서 한의학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코너도 함께 시작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cotldhs@naver.com 메일주세요.

시흥 호조벌과 일본 도요오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최진우 박사

(부천Y 이사,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대장들녘 생명포럼이 2차례 진행되었다. 지난 9월 17일에는 5차 생명포럼의 일환으로 생명의 땅 시흥 호조벌 탐방을 진행했고, 10월 2일에는 6차 생명포럼으로 ‘논습지를 지키면서도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박수택(정의당 생태에너지 부분부장, 전 SBS 환경전문기자)을 모시고 일본 도요오카 환경경제 사례와 비전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시흥 호조벌과 일본 도요오카 사례가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흥 호조벌은 조선 경종 1년(1721)에 조선의 행정기관 6조 중 하나였던 호조(戶曹) 소속 진흥청에 의해 조성되어 ‘호조벌’이라고 한다. 당시 굶주린 백성을 위해 바다를 막아 제방을 쌓고 약 150만평의 농토를 만들었다. 300여년이 지난 지금 호조벌은 천연기념물 저어새 등 다양한 생물이 찾아오는 생명의 땅으로 남아있다. 호조벌도 대장들녘과 마찬가지로 도시화로 인한 개발, 불법 성토, 주거용 하우스 등 난개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환경마인드를 가진 걸출한 김윤식 시장의 리더십과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호조벌의 생태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호조벌을 미래세대와 야생 서식지를 위하여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거점으로 여기고, 시흥시의 랜드마크로서 수도권의 새로운 탐방여행지이자 바라지 관광축을 형성하는 데 목표를 설정하였다. 호조벌 시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호조벌 지속발전추진단을 모집하고, Eco-planner를 양성하고, 호조벌 생태자원파를 홍보하고, 호조벌 정책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호조벌 창의체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호조벌 생태탐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꽃 산책누리길 조성, 호조벌 생태계 사계절 영상자료 구축, 호조벌 홍보관 조성, 호조벌 동행 놀이 제한 자단시설을 설치하는 노력을 하였다. 최근에는 호조벌 생태자원파 핵심사업으로 「저어새 우는 만들기 프로젝트」, 「호조벌 생태원」 만들기, 「청소년 Eco-planner」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력하여 호조벌 시흥 에코 증권을 발행하여 시민과 기업의 모금으로 호조벌의 시민자산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호조벌의 생태자원파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을 꿈꾸는 시흥시와 시민의 야심찬 시민자산 만들기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호조벌의 사례는 미래 도시를 위한 시장의 환경마인드와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조벌과 마찬가지로 대장들녘이 시민들에게 랜드마크적 생태자원으로 공감될 수 있도록 인식증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시민의 땅

43만 시흥시민
1인1천원으로 논1필지
4억3천만원



✓ 예코증권 구매

✓ 호조벌 논 1평 갖기

✓ 우리기업 10평 텃논 갖기

1평의 매입&보전 비용은 50만원선
2필지 2,000구좌 필요 (*1구좌 50만원)



SNS 기부 캠페인



#7079-2424 문자후원



공공기관에 저금통 비치

또한 논습지의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환경보전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반에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장들녘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인식 증진에 기반한 시민참여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효고현의 도요오카는 8만 6천명의 소도시이지만 황새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자연의 텃새 황새가 자취를 감춘 1971년 이후 도요오카에서는 2005년에 시험 방사에 성공하였다. 도요오카 나카가이 시장은 1960년도 흑백사진에 담긴 책가방 메고 논길 걸어가는 어린이들 곁에서 먹이를 찾는 황새부부의 모습, 모래톱 발달한 하천 물길을 농부가 소를 앞세우고 가는 주변에서 황새가 떼로 모여 쉬는 풍경을 주목하였다.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부터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농업이 주산업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생태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도요오카의 들과 강, 산이 황새의 쉼터, 먹이터, 집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쳤다. 겨울철에도 눈에 물을 대 주고, 경작하지 않는 논을 비오톱으로 바꾸며,

논과 농수로, 개울로 물고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했다. 묵논 비오톱은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 기능을 겸하고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기대던 관행적인 농업도 바뀌나갔다. ‘황새 키우는 농법’이라고 이름 붙여 생산한 쌀은 ‘황새 키우는 쌀’이라는 상표로 일반 쌀의 1.6배나 비싼 값에 팔린다. 토목, 개발 사업도 황새를 배려하도록 이끌었다. 지역을 관통하는 마루야마 강 가운데 모래톱 16헥타르를 홍수 예방 차원에서 모두 파내려는 방재당국을 설득해 준설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강 하류 둔치를 돌위 모두 농지로 확대하려던 계획도 바뀌 일부를 습지로 보전했다.

도요오카는 황새를 극진하게 보살핀 덕을 톡톡하게 보고 있다. 황새 복원사업의 연구 겸 전시, 교육을 하는 ‘황새고향공원’에는 한해 탐방객 30만명이 다녀간다. 게이오대학과 도야마대학 연구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 증대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는 10억 엔(한화 140억 원)이다. 지역 국내선 공항(다지마공항) 이름도 ‘황새-다지마공항’이 됐고, 특급열차도 ‘황새호’다. 지역의 유명한 온천 기노사키-



写真提供：富士光芸社

1960年6月 市内出石川



오사카 간 노선버스 몸통에도 황새를 그렸다. 우주 정거장에 보급품을 실어다주기 위해 2011년 1월 22일에 발사한 무인 보급기 이름도 ‘황새호’로 붙였다.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역의 마루야마 강 하류 유역과 주변 논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일본의 작은 지방 농촌 공동체가 황새 보호 하나로 국제적인 생태명소로 자리를 굳혔다.

나카가이 시장은 도요오카의 시정 목표로 ‘환경경제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을 좋게 하려는 노력과 경제활동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자극을 주는 것, 다시 말해 ‘환경과 경제가 공명’하는 지역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지금 도요오카는 과거 1960년대처럼 어린이와 마주쳐도 놀라지 않던 황새가 있는 마을 풍경을 되찾았다. 황새가 눈에 돌아오서 반갑고 기쁘다고 하는 데, 더 반갑고 기쁜 일은 아이들이 눈에 돌아왔다고 한다. 아이들이 황새 키우는 유기농 논에서 마음껏 놀게 되고, 아이들이 있는 논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아이들은 황새 키우는 건강한 쌀로 밥을 먹으면서 황새 고향을 지키기 위한 미래세대의 자긍심이

생겼다는 것이다.

일본 도요오카 사례를 들려준 박수택 선생님은 부천이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이지만 생명의 땅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을 시작으로 환경경제도시로 발전되기를 부탁하였다.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실천하는 시민으로 시민환경 학습의 폭을 넓히고 수준을 높혀 수도권에서 모범이 되는 생태환경 경제도시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생태가 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18세기 산업혁명시대에 존재하던 천박한 시각이며, ‘남들 다 하는 것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것이 남는 거다’라고 하였다.

우리 부천에 ‘시흥의 김윤식 시장, 도요오카의 나카가이 시장 같은 환경마인드를 가진 시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갈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 부천에서는 대장들녘의 환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한 우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운동의 길을 넓혀 가면서 생태환경 경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부천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대장들녘의 존재와 가치를 더 알려 내자!

제7차 대장들녘 생명포럼

- ▶ 주제 :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서비스 영향평가」
- ▶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오후 7시
- ▶ 장소 : 부천YMCA 6층 (석천로 169번길 42)
- ▶ 강사 : 전재경 박사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UNESCO 인간과생물권 한국위원회 위원

2018년 가을의 황금빛 대장들녘 생태탐사



김 지 현 (등대 살림지기 촛불)

이번 가을 대장들녘 생태탐사는 생협 촛불님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바람길이라던, 자연생태 寶庫라던 그 대장들녘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 ‘최진우 박사와 함께하는 대장동 생태탐사’라는 주제로 10월 등대 살림활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장교회에서 모인 우리들은 최진우 박사의 지도하에 습지식물을 관찰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되고 있는 금개구리 서식지로 이동해 관찰했다. 그리고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로 이동하여 그 일대를 둘러보았다. 전에 철원 평화순례때에 소이산에서 내려다보던 광활한 철원평야에서 느꼈던 그 비슷한 감동을 대장들녘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동서남북을 훑히 볼 수 있었고 저 멀리 북한산과 강서의 낮은 산들 그리고 계양산이 대장들녘을 둘러싸고 수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한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래서 이곳을 바람길이라고 부르는구나’하고 생각이 되었다. 박사님께서 땅이 품고 있는 습지의 수분이 도시의 건조하고 오염된 더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셨고 아스팔트와 시멘트 아래에서 죽은 땅이 아닌, 생명의 어머니, 숨 쉬는 대지, 살아있는 대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소중한 환경 자산인가를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부천에 있구나. 위대한 환경자산을 부천이 보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몽클하기도 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태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하는가 하는 숙제도 함께 얻었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막으로 이동하여 긴 장화로 갈아 신고 피 뽑기 체험과 습지 주변 생물 탐사를 했다. 이 가을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인 벼들이 만든 황금색 들녘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자연도감에서나 볼 수 있는 왕잠자리 애벌레와 갖가지 곤충들을 채집해 관찰한 후 다시 방생했다. 다음에는 아이와 꼭 함께 다시 와야겠다고 반복해 다짐을 했다.



다시 YMCA 나눔방으로 돌아와 탐사 후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야간탐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규 탐사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YMCA 가족들이 대장들녘 탐사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 또한 농막을 지어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생태탐사를 통해 자연이 주는 선물을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닌 온몸이 전율하는 감동스러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신 대장들녘 지킴이 최진우 박사님과 YMCA 실무자님들, 세상을 밝히는 촛불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대장들녘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몇 조원은 족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위대한 환경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천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대장들녘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무도 무겁게 가지게 되었다.



대장들넉 금개구리는 가족농부

- 우리논을 지킬 허수아비 만들기

지난 9월 15일, 누렇게 익어가는 우리논의 알곡들을 지켜줄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주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 허수아비에 옷을 입히고, 모자도 씌워 주었지요. 가을이 깊어 갈수록, 대장들넉이 황금들판으로 변모하겠지요? 다음 달에는 추수의 기쁨을 맛보려 대장들넉 금개구리 논에 갈 것입니다. 그 동안 허수아비야, 금개구리 논 잘 지켜줘!



부천Y 3대 과제

대장들넉 지키기, 탈핵(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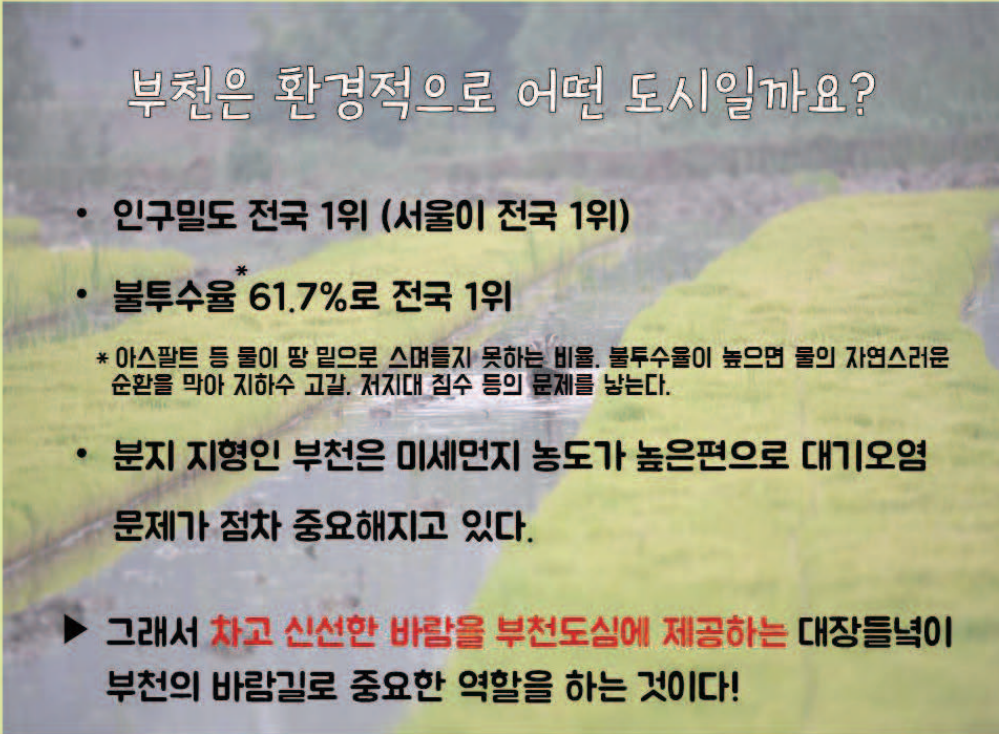
작년에 이어, 2019년 회원모집운동 집중기간 동안 회원들과 함께 부천Y 3대과제에 대해 함께 실천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클럽별로 위 세가지 운동과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50일 동안 실천활동을 함께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한걸음! 회원모집운동 기간동안 생각을 모으고, 실천을 모아 3대 과제들을 재미 나게 풀어가 보아요!





부천의 바람길,

대장들녘 지키기



부천은 환경적으로 어떤 도시일까요?

- 인구밀도 전국 1위 (서울이 전국 1위)

- 불투수율^{*} 61.7%로 전국 1위

* 아스팔트 등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비율. 불투수율이 높으면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막아 지하수 고갈, 저지대 침수 등의 문제를 낳는다.

- 분지 지형인 부천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편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그래서 **차고 신선한 바람을 부천도심에 제공하는 대장들녘이 부천의 바람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장들녘이 품은 생명

대장들녘엔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 37종 외에도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

(고라니, 줄장지뱀, 금개구리, 맹꽁이, 재두루미, 큰기러기, 황새, 황로, 칩부엉이, 참게 등)



우리가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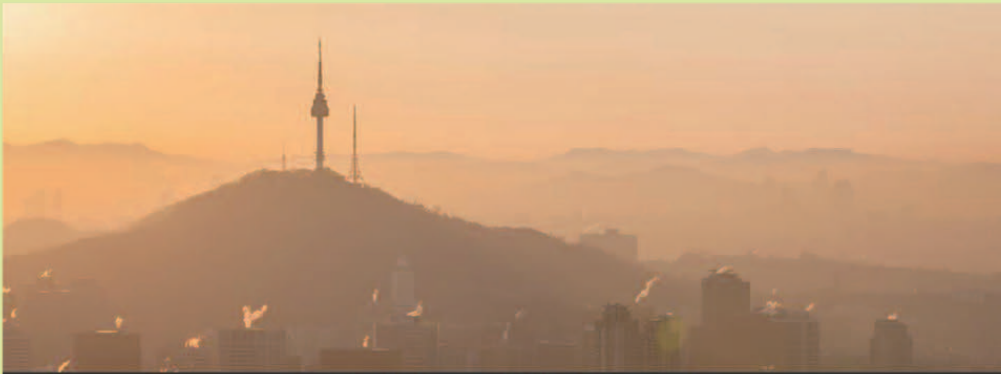
재두루미 뱃지 달고,
재두루미 먹이주러 함께 가기! (12월 중)

둘!

'금개구리는 가족농부'에 참여하여
함께 대장들녘을 느끼며 벼농사 짓기

셋!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상황에 관심 갖고
지켜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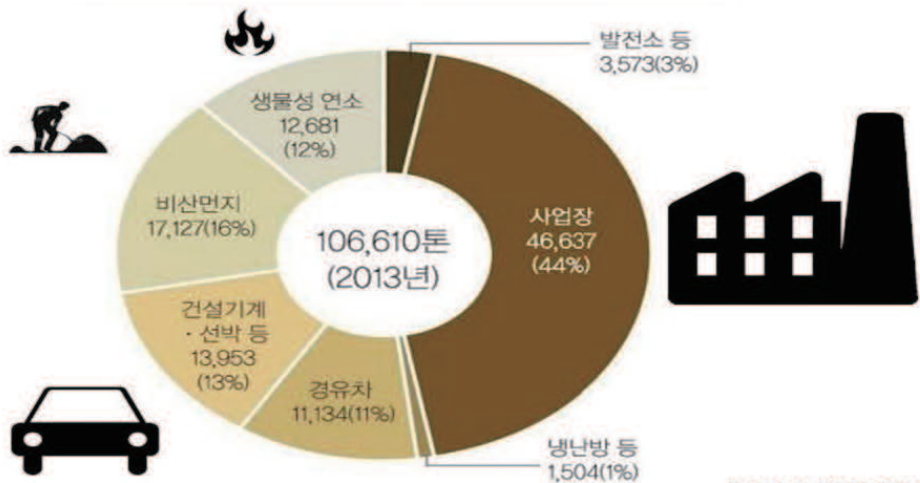


미세먼지,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세먼지로부터 삶의 질 지켜내기

미세먼지는 왜 생길까?

[그림 6] 전국 PM2.5 배출량



위터저널 2016년 6월호

미세먼지는 무엇?

- ▶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 2.5)
- ▶ 흙먼지와는 성분이 다르다.
- ▶ 석탄화력발전소, 노후한 경유차량(디젤) 배기가스 등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대기 중 먼지, 습도와 만나 발생
- ▶ 특히, 민감군(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만성질환자)들에게 치명적
-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
- ▶ 전세계적으로 한해 700만명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많은 수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카풀,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하기, 될 수 있으면 걸어다니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는 배기가스 속 대기 오염 물질과 타이어의 과열로 인한 미세입자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울! 일회용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장바구니와 개인컵 사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실행되고 일회용 제품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태워지거나 매립되는 쓰레기는 줄어들 겁니다. 이로 인해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지구 온난화의 속도 역시 느려질 겁니다.

셋!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 줄이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급출발과 급제동, 공회전을 할수록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돈만 밝히는 핵발전소 꼭 써야 할까요?

풍력발전, 햇빛발전은 비싸다?
핵발전소가 없으면 전기요금 폭탄이다?

NO!

원자력발전소는 발전단가가 낮아보이지만,
실제로 숨은 비용을 따져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 발전소 건설, 폐기물 처리 및 보관,

사회 갈등 비용, 원료 구입 등의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대안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한 번 시작하면 발전효율이 점점 높아져서
비용이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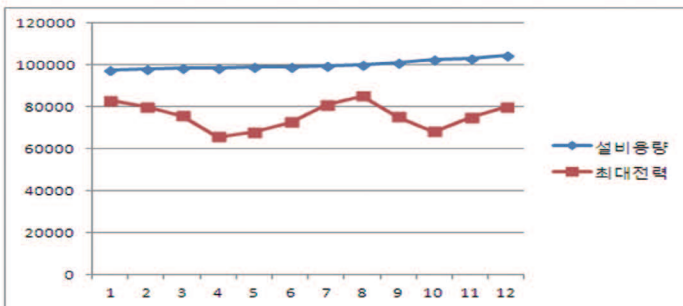


핵발전을 하고 송전탑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는 핵마피아라고 부른다.

원자력 연구가, 정치인, 고위관료, 언론인, 대기업, 한수원..

핵마피아들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

1. '전기가 모자란다'라는 거짓말



- 2016년 통계치를 보면 전체 발전량의 17%~35%는 늘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
 - 한국의 적정 설비예비율은 12%면 적당하다(서울대 연구결과).
- 그러나 핵마피아들은 22%~30%로 정하고 필요도 없는 발전소와 송전탑을 짓도록 결정했다.

핵발전을 하고 송전탑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는 핵마피아라고 부른다.

원자력 연구가, 정치인, 고위관료, 언론인, 대기업, 한수원..

핵마피아들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

2. 한수원의 비리와 사고 은폐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1년 한수원 김 모 팀장이 고리원전에서 부품을 빼돌려 새것으로 둔갑한 후 교체하여 3억 7천만원을 받은 사건

2013년 한수원 직원들이 대규모 뇌물을 받고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불량 부품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다. 영광5,6호기, 울진3,4호기, 신고리3,4호기 등이 무더기 적발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사고 고장 건수는 총 709건
하지만 은폐된 건수는 얼마나 될지..?
(2012년 고리 1호기 비상전원 상실 사고를 은폐했다는 것이 밝혀짐)

탈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조건 전기 아껴쓰기

주변에 탈핵 알리기

(탈핵벤티지, 소책자, 기사 공유, 소문내기)

지역이슈 잘 지켜보기

(부천시민햇빛발전, 밀양 송전탑, 경주 지진, 공론화위원회,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마피아 등)



부천YMCA 2019 회원모집운동

2019년 부천Y 회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우리는
평화가 되자!”

2019 회원모집운동 발대식

11월 1일(목) 오후 7시, 5층 체육관

11/6 (화) 제7차 대장들녘 생명포럼

11/9(금) 다큐영화 '하늘색 심포니' 공동상영

11/15(목)-17(토) 제13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11/27(화) 제21회 생활신앙강좌 '에니어그램으로 본 성서연구'

11/22(목)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순례

2019 회원모집운동 송년예배 & 보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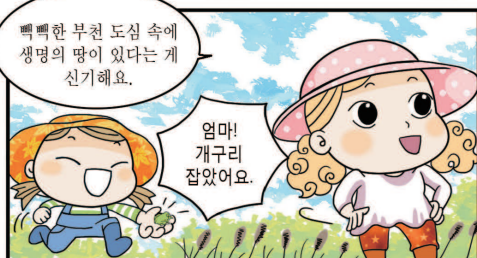
12월 20일(목) 오후 7시, 5층 체육관

드대(밥사)

밥상독특

밥상 여덟. 우리 쌀 사랑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글. 그림 연은미



참, 대장동 논에서 수확한 친환경 쌀 중 부천 유치원, 초, 중학교 급식에 40%가 들어간대요.



와~ 이렇게 가까운 곳의 쌀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고요?

자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 쌀들을 먹겠네요.



좋다~

이른바 로컬푸드!

걱정스럽게도...



부천시에서 이 넓은 논습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해요.



대장들녘은 공기를 맑게 해주고 천연기념물 제두루미가 찾아오고 별정보호종이 무척 많은 곳인데 말이죠.

네엿?! 말도 안 돼요!



그렇잖아도 미세먼지에 숨쉬기도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의 바람길 대장들녘'을 널리 알리고 지켜야죠!



저도 많이 알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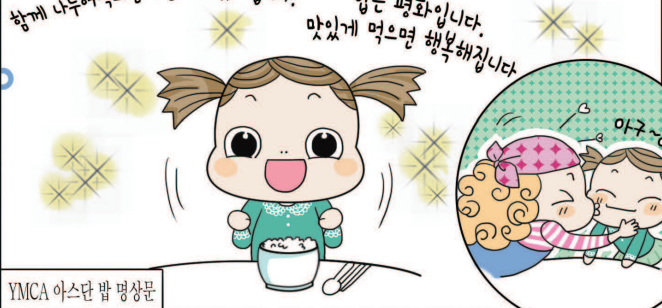
우리가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이란다~~



호~

밥은 자연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이 담겨져 있습니다
밥은 나눔입니다.
함께 나누어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내 몸과 마음 생각을 쏙쏙 키워줍니다.
밥은 평화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아구~예빠

YMCA 아스단 밥 명상문

마침~ 다음에 만나요~^^

“사랑은 보는 것”



한 면 희

(부천YMCA등대생활협동조합 이사)

유난히도 뜨거운 열기로 폭폭 찌던 찜통더위의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선선한 가을입니다. 사색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랑은 ‘보는 것’입니다.

‘보다’는 보통 ‘단풍을 보다’처럼 눈으로 느끼는 바라보다(see)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다’라고 하면 바라보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울면 달래주고 풍을 싸면 치워주는 ‘돌보다(care)’가 됩니다. ‘돌보다’는 ‘보살펴서 도와주다’라는 뜻인데 ‘돌아보다’의 준말이니 ‘다른 곳을 보다가 돌아와서 다시 보다’가 됩니다. 또 ‘아기를 봐주다’에서의 ‘봐주다’는 ‘보아주다’의 준말이며 ‘살펴서 이해하다(understand)’입니다.

아기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엄마에게 나만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은 아기가 자라고 살 아기는 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섬집 아기’ 동요의 엄마는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굴을 따라 갔다가 갈매기의 울음소리에 아기도 울고 있지 않을까 마음이 설레어 굴을 따다 말고 고갯길을 달려옵니다. 또 필리핀의 시골 엄마들은 아기를 혼자 두고 일을 나가야 할 때는 미리 잡아두었던 도마뱀들을 방에 풀어놓아 모기를 쫓게 합니다. 엄마는 아기를 보면서 사랑이 ‘돌봄’임을 알게 됩니다.

‘예쁜 아기’가 자라면 ‘착한 아이’가 되어 선(善)의 존재가 됩니다. 선(善)은 양(羊)이 있고 나뉘이 있고 입(口)이 있으니, 양을 잡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respect) 사랑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착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성인(成人)이라고 하니 ‘사람’이 되며 진(眞)의 존재가 됩니다. 어른은 ‘된 사람’이고, ‘진짜 사람’, ‘참 사람’, ‘깨달은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어른은 사랑니가 난 사람이기에 사랑을 주는(give) 즉 봐주는 사람입니다. 어른들은 ‘나와 너는 하나’임을 깨달아 사랑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미시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는 양자가 입자성과 파동성의 이중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중슬릿의 실험’과 ‘관찰자 효과’를 통해서 양자가 이중슬릿을 통과할 때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성을 나타내어 간섭무늬를 만들지만, 관찰을 하면 입자성을 나타내어 두 줄을 형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양자가 파동이다가 누군가가 보면 입자로 변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을 하면 즉 보고 돌보고 봐주면 파동이 입자가 됩니다. 입자가 모이면 물질이 되니 사랑이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는 셈입니다.

제28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지난 8월 14일,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제28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의 일환으로 '제3회 생활음악제'가 열렸습니다. 부천시민들과 함께 평화를 노래하고 통일을 염원하며 지난 28년간 계속된 부천시민통일문화제. 한여름의 폭염에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여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부천YMCA도 부스운영에 참여하였으며, 통일김밥 만들기 사진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생활음악제 본선에는 다양한 구성의 8팀이 참가하여, 가톨릭대 합창동아리 FOM(Freedom of Mouth)이 자작곡 'Day&Night'로 도모다리만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는 10·4선언 11주년을 기념하여, '원미산 통일염원 시민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천절 휴일을 맞이하여 가족, 동료들과 함께 가을별 가득한 원미산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평화 가득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합운동장 한편에서는 올해로 네번째 열리는 통일요리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한 행사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부천시민들과 함께 한걸음 더 가까워진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천시장 시민과의 대화



2018년 10월 11일 부천시 중앙공원에서 2:30~5:30까지 부천시의 장덕천시장과 4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부천시정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천YMCA에서도 11명의 실무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여 부천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2018 다가치놀자 송내동마을축제 어울나래



지난 9월1일 한없이 맑고 푸르렀던 날씨만 큼이나 유리&다니엘 결혼파티에 참여한 청소년, 마을주민 모두 흥겨운 축제를 즐기면서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였습니다. 길놀이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창작연희그룹 '백희'의 모듬북/버나돌리기 공연, 청소년 동아리의 댄스, 방과후아카데미 친구들과 우

당탕탕 얼쑤 어르신들의 결혼축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결혼파티는 아프리카의 음악과 춤으로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정말로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송내동마을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직원수련회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2018년 8월 25일(토) “우리로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 직원수련회가 YMCA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 뽀뽀한 일정이었지만 함께 노래도 부르고 생활재를 이용해 공동체별로 식사도 만들어 먹고 대장들녘에 가서 직접 피를 뽑아 보는 체험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자연 안에서 재충전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주요일정 •

정기이사회

일시 : 11월 13일(화), 12월 11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6층 신나는방

영화공동상영 '하늘색 심포니'

일시 : 11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신중동역 롯데시네마

부천시민평화대학 '외복적정의 워크숍 4단계'

일시 : 11월 5일~11월 27일
매주 월, 화 오전 10시
장소 : 5층 나눔방

제7차 대장들녘 생명포럼

일시 : 11월 6일(화) 오후 7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시민정책클럽 도시재생 현장탐방 '세운스쿨'

일시 : 11월 10일(토) 오전 8시 30분

제4회 에너지프로슈머 시민교육

일시 : 11월 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5층 나눔방

제 5회 에너지프로슈머 시민교육

일시 : 11월 14일(수) 오전 9시 / 장소 : 제로하우스

제13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일시 : 11월 15일(목) ~11월 17일(토)
장소 : Y회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 순례

일시 : 11월 22일(목) 오전 9시

제 3,4회 생활신앙강좌

일시 : 11월 27일(화), 12월 31일(화) 오후 7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2019회원모집운동 보고대회 & 송년예배

일시 : 12월 20일(목) 오후 7시
장소 : 5층 체육관

아기스포츠탄

2019년도 신입단원 추첨일

일시 : 11월 7일(수) 오후 5시
장소 : 5층 체육관

아기스포츠탄 2학기 공개수업

일시 : 11월 20일(화) ~12월 13일(목)

크리스마스 잔치

일시 : 12월 21일(금)

겨울방학

일시 : 12월 24(월)~ 1월 4일(금)



어린이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일시 : 11월 2일(금)

역사기행단

일시 : 11월 10일(토) / 장소 : 동구릉

일시 : 12월 8일(토) / 장소 : 백범기념관

자연기행단

일시 : 11월 24일(토) / 장소 : 단양동굴탐험

일시 : 12월 15일(토) / 장소 : 강서습지생태공원

체육교육팀

수영장 재등록

일시 : 11월 17일(토)~22일(목)

수영장 12월 신규접수

일시 : 11월 26일(월) 오전 8:10

수영장 강습반 응급처치교육

일시 : 11월 29일(목)~30일(금)

체육팀&아기스포츠팀단 수영대회

일시 : 12월 8일(토)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집단상담

일시 : 11월 1일(목), 2일(금), 8일(목), 9일(금),
23(금), 29(목) 30(금)

장소 : 원종고, 역곡중, 성주중 성곡중

청소년 평화교육

일시 : 11월 5일(월), 6일(화), 7일(수),
8일(목), 16일(금), 22일(목), 23일(금)

장소 : 역곡중, 부흥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제14회 청소년사회참여프로젝트 '나비효과' 활동보고회

일시 : 11월 3일(토) 오전 10시 ~오후 5시

꿈의학교 온새미로 회복적마을콘서트

일시 : 11월 17일(목) 오후 4시~오후 6시

제주평화기행

일시 : 11월 25일(일)~12월 20일(목)



• 클럽일정 •

사진클럽 <선용>

정기모임

일시 : 11월 7일(수) 오후 5시
장소 : 소사 스튜디오

선용출사

일시 : 11월 24일(토) 오후 12시

그린합창단

정기연습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6층 신나는 방

경기예술제

일시 : 11월 1일(목)
장소 : 화성예술회관

등대생협

낮등대 지기월례회

일시 : 11월 29일(목) 오전 10시
12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6층 신나는 방

저녁등대 지기월례회

일시 : 12월 19일(수) 오후 7시
장소 : 4층 햇살방

청소년상담클럽 <디딤돌>

정기모임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5층 나눔방

월례회

일시 :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5층 나눔방

서예교실 강사 : 유진생 선생님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 5층 나눔방

녹색가게

녹색가게 토요나눔장터 폐장식

일시 : 11월 3일(토) 오후 12시
장소 : 부천시청앞

녹색가게임원워크숍

일시 : 11월 11일(일) ~ 11월 12일(월)
장소 : 제천ES리조트

좋은아빠모임

월례회

일시 : 11월 5일(월) 오후 8시
장소 : 5층 나눔방

식생활교육클럽 <쌀한톨>

정기모임

일시 : 11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5층 나눔방

월례회

일시 :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5층 나눔방

G樂P樂

기타우쿠렐레 강습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장소 : 5층 나눔방 / 6층 신나는방

정기총회

일시 : 11월 30일(금) 오후 7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점배 소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6층 신나는 방



**부천YMCA**

제 13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웃과 마음을 나누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함께하는 기쁨,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부천Y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지원현황> 가정마다 10kg 지원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97박스	272박스	275박스 수면양말2컬레	274박스
	물푸레, 도담도담, 꿈이청소년심야식당, 은빛날개,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송내2동 기초생활수급자및저소득층, 오정/소사/원미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가정			

나눔 1. 김장비용 후원하기

- 3만원으로 1가정(10kg)에 김장김치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 부천지역 207가정에 김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373-4321-93 (부천기독교청년회)

나눔 2. 고춧가루 후원하기

- 생협나눔터(1층), 안내데스크(지하1층,4층)에 고춧가루를 후원해주세요. (너무 오래되어 묵은 고춧가루는 버리게 되니 가급적 신선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 기간 : 11월 15일(목) 까지

나눔 3. 김장담그기 자원봉사 참여하기

- 김장나누기 행사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신청해주세요.

11월 16일(금)	오전 : 부재료 손질 (50명) 오후 : 무채썰기 (25명)
11월 17일(토)	오전 : 김치담그기, 박스포장 (100명) 오후 : 배송 (2인이상 1팀/10팀이상)

문의 ☎ 회원운동팀 정다운 (032-325-3100)



부천YMCA 베트남 평화순례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지역을 방문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는 이번 베트남 평화순례에 부천Y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1월 12일(토) ~ 17일(목), 5박 6일
- 참 가 비 : 회원 약 86만원 / 비회원 약 90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 가 자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누구나 (25명 선착순 모집)
- 신청기간 : 11월 15일(목)까지
- 탐방지역
다낭, 호이안, 미선 유적지, 꽝남성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인 민간인 학살 지역 참배 및 생존자 만남
- 문 의 : 회원운동팀 032-325-3100

